탐 방 부산 총포교사회

그늘진 곳 발로뛰며 전법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6백20명 회원 병원·군부대·불우청소년 정기방문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중생에 널리 전한다면 그 공덕은 다함이 없다고 〈금강경〉은 설하고 있다.

한사람에게라도 더 부처님법을 전하고자 하는 서원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쳐 활동하는 모임이 있다. 바로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의 포교사 6백2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포교사회(회장 이성준).

총포교사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조계종 포교사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던 지난 92년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첫발을 내디뎠고 다음해 2기 졸업생이 합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6기 포교사 과정 졸업생까지 힘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총포교사회는 중생의 온갖 재난과 고통을 없애 주고, 무명을 거두어주며 온갖 서원을 성취시켜주어야 한다는 의무이행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사시 찬불가를 통해 법음전파에 노력하는 50여명의 합창단, 회원의 문예작품, 회원동정 등을 담아 분기별로 발간하는 회보, 완도 보길도의 초등학교생을 초청하는 포교행사를 비롯 매년 열리는 불교학술세미나에서는 단골 발표자로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기별 활동은 단연 눈길을 끈다. 포교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병원과 군법당, 불우한 청소년 장학금지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비실천을 펴고 있는 것. 2기는 부산국군통합병원의 묘광사에서 매주 화, 목요일마다 법회를 열고 수시로 수계법회를 가져 군불자들을 키워가고 있으며 3기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4기와 5기는 소년소녀가장돕기와 거제동 수덕사의 노인무료급식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졸업생들인 6기는 현재 부산대학병원내의 법당을 활용한 포교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적인 활동뿐 아니라 내실을 다지기 위해 기별로 경전공부를 위한 유마회, 부산진시장내 범불회, 포교사 수화반, 산악회 등을 조직 여래의 사자로서 청정한 마음을 가꾸어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발로 뛰는 포교에서 얻는 보람만큼이나 여건의 취약함과 지원부족, 예산부족 등의 여러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특히 포교원에서 포교사로 배출된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나 예산 등을 마련해 주지 않고 각 사찰스님들의 포교사에 대한 인식부족이 활동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강복조 총포교사회 총무는 "어려운 여건이라해도 나 하나로 인해 한사람이라도 불연이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교에 임하는 것이 포교사의 길이자 의무"라고 힘주어 말한다.

외욕에 찬 총포교사회 회원들의 행보에 정책적인 기반과 예산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불국토 구현은 멀지 않았음을 확신케 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총포교사회는 4일 부산군군통합병원서 정여스님을 법사로 장병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관응스님 선학원 15년만에 설법

관응 직지사 조실스님이 안거수행 15년만에 법석에 올랐다. 관응스님은 4일 종로구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원장 성해)에서 열린 '한국불교 전통선수행 중흥 영산대설법회상' 입제식에 참석, 법문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5백여명의 불자들을 향해 관응스님은 "일체중생은 본래 하나이다. 이 도리를 모르고 헤매기 때문에 중생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에 진력해야 한다"고 설했다.

일타스님 '기도' 일어판 출판기념회

동곡 일타스님 '기도' 일어판 출판기념 및 친견법회가 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청하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화산스님(대구 보광원조실) 설정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수스님(법수선원 조실) 무비스님(승가대학원장) 등 2천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고희 생신을 맞이한 일타스님은 "나의 글을 일본에까지 전할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인덕원 노인학교 제1회 입학식

인덕원 노인학교(교장 성운스님·삼천사주지)는 1일 인덕노인복지회관에서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자용스님(수국사주지) 법성스님(관음사주지) 이배영 은평구청장 김용식 은평경찰서장 이권철 진관외관동장 정일선 잿말 경로당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인덕원 노인학교 프로그램에는 서예 레크리에이션 민요 단전호흡 명상 한글교실 사물놀이 등의 과목이 개설돼 있다.

통도사 해군사령부 수병위문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1일 진해 해군사령부의 해안사(지도법사 정직한)를 방문, 소위임관을 앞두고 세달간 세계 13개국 순항훈련을 떠나는 160여명의 수병을 격려하고 무사귀항을 기원했다. 심산스님은 떡과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신심깊은 불자로 알려진 청주함 우상준함장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장병들이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곧고 티없이 자라게…

봉선사 딸기원 개원

봉선사(주지 밀운)가 구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될 딸기원 어린이집(원장 박경주) 개원식이 1일 봉선사회주 월운스님 주지 밀운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딸기원 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옥상에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 2세부터 7세까지 4개반 543명을 모집한다.

1천배·교리시험 거쳐야 보살계

서울대병원 불자회 창립10돌 맞아 첫 수계식

불자로서 세롭게 태어나는 보살5계 수계법회.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천주교의 영세처럼 일정기간의 교리공부와 시험을 거쳐야 할까. 서울대병원법회(지도법사 은진스님)가 직원불자회(회장 조보연 교육연구부장) 신도들에게 상당한 불심과 기초교리를 통해 보살5계를 수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은진스님은 "오는 10월 18일 서울대병원법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첫 수계법회에 1천배 기도와 교리시험을 통해 합격한 직원불자들에만 보살5계를 수여할 예정"이라면서 "환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의사·간호사 불자들이라 더욱 엄격한 수계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진스님은 이미 수계원서를 낸 110명의 불자들에게 9월 1일부터 20일까지 1천배 기도를 본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법당에 차트를 마련, 근무시간 틈틈이 절 할 때마다 직접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지도해 온 불자 예법과 근본교리 공부를 심화시키고 개인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수계법회에 임박해서는 불심 깊고 실력있는 알짜배기 불자들에게만 보살5계를 수여할 예정이다.

은진스님의 엄격한 보살5계 수여절차는 병원법회 불자들의 불심을 확고히 해 직장생활에 모범을 보임은 물론 환자들에게 불법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 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은진스님은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이 수계법사로 참석하는 당일 법회에 원서를 낸 불자 전원이 보살5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경불련 시민대학개설

교리등 교육 불교운동 선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대학(공동회장 설조·안동일)은 올바른 불교교육과 불교시민운동을 선도할 불교시민대학(학장 설조)을 처음으로 개설한다.

10월 7일(매주 화·금 저녁 7시 30분)부터 12월 16일까지 정동회관 2층강당에 개설되는 불교시민대학은 불교교리, 불교예술, 불교와 사회사상, 사찰순례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넘어 불교의 대사회적 실천운동을 지향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1년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평가와 시험을 실시, 불교시민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지혜의 마당'에서는 부처님의 삶과 사상, 불교예절 등을 △'힘의 마당'에서는 불교대화법, 불교와 가정 환경 통일을 △'풍요의 마당'에서는 명상, 불교예술, 전통문화를 △'돛 다는 마당'에서는 사찰순례와 전법을 위한 서원세우기 등을 지도한다. (02)765-5448

우리 모임에선

금강경독송회 철야정진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27, 28일 1박2일간 경주법당에서 97년도 전국통합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이번 법회에는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8백여명의 회원들이 동참, '마음바치는 법' 등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다가선다. (02)742-0172

부산구도회 20돌기념 특강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회장 한동대)는 25, 26일 오후 7시30분 부산일보 10층강당에서 창립 20주년을 기념, 정병조 박사(동국대 부총장, 한국불교연구원장)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051)462-5062

전국불교산악인련 현판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헌수·대현그룹 회장)는 3일 서울 신당동 대현그룹 본사 3층에 사무국을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02)233-4331

'맑고향기' 해인사생태기행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27, 28일 양일간 경남 합천 해인사로 제5회 맑고향기롭게 사찰환경생태기행을 떠난다. (02)741-4696

청소년환경감시 정화활동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청소년환경감시단(단장 돈관스님)은 8월 31일 경주 반월성일원과 계림, 첨성대 등 주변유적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사진〉. (0561)41-0762

부산대불련 정기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박진현)는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12개 지회 7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홈페이지 개설 등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감로심장회 사무실 개원

감로심장회(이사장 보운스님)는 8월27일 진주 귀빈예식장에서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 사무실 이전 개원법회를 거행했다〈사진〉.

수강생모집 10월 8일 개강

이제 한국불교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전세계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미래 한국불교의 전법 역군을 모집합니다.
해외에서 포교나 수행 또는유학을 원하시는
스님 및 법사님이나 불자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포교(통역)과정 (3개월)
스님이나 법사(포교사)자격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불교(영문으로 된 불교서적)와 영어 위주의 교육으로 해외에서 교포는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
☞강의시간 : 매주 수,토요일 오후 4시~6시/수강료 : 매월 15만원

⊙ 해외수행과정(3개월)
해외의 사찰에서 직접 수행경험을 쌓고 싶으신 스님 및 법사님이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영어 (회화위주)와 불교문화사 등 해외의 외국사원에서 수행하는데 갖춰야할 기본지식 및 적응력을 지도함
☞강의시간 : 매주 수,토요일 오후 3시~4시/수강료 : 매월 10만원

⊙ 해외 유학과정
불교관련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스님 및 법사님이나 불자들을 위하여 원하시는 대학에 유학을 추천, 알선하여 드림

⊙ 국제행사 및 통역
다년간 국제불교활동과 행사·회의 참가경험 그리고 완벽한 불교영어를 구사하는 통역으로 국제행사 및 회의등을 대행하여 드림

⊙ 해외 동행 성지순례 및 각종 국제행사, 회의참석
해외의 불교성지나 각종 불교 국제행사 및 회의에 동행하여 의사소통과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를 도모하여 드림

※ 법사 및 삼장법사 과정(1년/통신)
※ 불교의식(범음범패)과정 (3개월/야간 및 통신)

海東佛敎大學 附設
韓國佛敎海外傳法會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경동빌딩 302호
TEL. (02)741-0495~6, FAX (02)763-4603
◆ 보다 자세한 것은 전화, 서신문의하면 원서 및 안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

公 告

離緣 및 除籍

유영욱(柳映旭)
도 암(道 岩)

위 자는 수덕사 법장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으나 수년전 환속하여 이연 및 제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위 자는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수덕사와 법장스님을 거명하며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위 자는 수덕사나 법장스님과는 무관함을 알리며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97. 8. 26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
주지 법장

제 1 회 창작 찬불가 공모

전통불교음악인 범패를 계승하고 현대음악과의 조화를 통한 불교음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작찬불가를 공모합니다.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기대하는 이번 공모행사에 민족정서 및 불교정서에 맞는 수준높은 찬불가를 창작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모부문 (작사·작곡 포함)
-. 합창곡 (7분이내)
-. 중창곡 (5분이내)
-. 독창곡 (5분이내)

나. 응모자격
-. 기성 및 신인으로 만 18세 이상인 관심있는 모든 분

다. 접수기간
-. 1997년 11월 10일 ~ 11월 20일

사. 시상내역
-. 대 상 : 1명(상금 300만원, 트로피 및 상장)
-. 금 상 : 1명(상금 200만원, 트로피 및 상장)
-. 은 상 : 2명(상금 100만원, 트로피 및 상장)
-. 동 상 : 2명(상금 50만원, 트로피 및 상장)
-. 장려상 : 4명(트로피 및 상장)
※ 단, 시상부문은 심사결과에 다라 달라질 수 있음

아. 응모요령
-. 1인 부문별 (합창곡, 중창곡, 독창곡) 1곡씩 3곡까지 응모가능함
-. 모든 응모작품은 피아노 반주를 원칙으로 함
-. 작품은 필히 먹으로 정서한 악보 1통과 복사본 5통을 제출하실 것
-. 작품속에는 작사·작곡자의 성명을 비롯한 악보외의 표식은 하시지 말 것
-. 작곡자의 이력서 1통과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실 것
-. 각 부문 가사를 적어내시고 곡해설(200자 원고지 2매 이내)을 첨부하실 것
-. 신청서 (본 종단 소정양식) 1부 제출하실 것
-. 신청금 : 30,000원

자. 참고사항
-. 입상작품 발표회는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하여 연주하게 되며, 작곡자가 별도 요청시 본인이 국악편곡할 수 있음(단 작곡자가 국악편곡을 하는 경우는 12월 27일까지 국악 관현악총보 및 파트보를 제출하실 것)
-. 낙선작품은 12월 5일부터 12월 10일 까지만 환수가능함
-. 입상자 또는 작품이 결격사유가 발생할시는 시상 후에도 입상자격을 취소하고, 시상금 및 트로피·상장을 회수하며, 향후 모든 종단 행사에 참여 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 입상작 시상 및 발표회는 98년도 예정(일정 별도 통보)

라. 신청서 교부
-. 1997년 9월 1일 ~ 9월 30일

마. 심사발표
-. 12월 9일자 불교신문 게재 (12월 5일 발행 : 주간신문)
-. 개별통보 (입상곡에 한함) : 12월 5일

바. 심사위원
-. 불교 음악계의 권위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며, 심사발표시 동시 발표

■ 접수및 문의처 : 총무원 문화부 (739-1830, 725-1674)

위 공고함
불기 2541(97)년 8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